

인용, 주석, 참고문헌 [논문 형식]

노동자 + 노조의 역사 → 노조

핵심 포인트

- 내가 스스로 생산한 자료(창작, 통계, 여론 조사 등등)가 아닌 내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.
- 인용 표시 여부가 표절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. (연구 윤리 준수)
자기표절도 주의할 것. 공백투고 과거에 비해 강조됨
- 인용할 때 인용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자료인지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
- <좋은 논증의 조건>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.

인용의 종류

❖ 직접 인용(두 가지 방법):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경우

1. 본문에 “ ”(따옴표)로 묶어서 표시하는 방법

미판단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. 칸트는 자연과 예술의 관계에 관해, “자연은 그것이 동시에 예술인 것처럼 보였을 때 아름다운 것이었다. 그리고 예술은 우리가 그것이 예술임을 의식할 때에도 우리에게 자연인 것처럼 보일 때에만 아름답다고 볼릴 수 있는 것이다.”³⁰⁾라고 언급한다. 이 점에서 취미의 이율배반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취미판단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미감적 이념은 자연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. “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을 - 자연미가 됐든 예술미가 됐든 - 미감적 이념들의 표현(Ausdruck)이라고 부를 수 있다.”³¹⁾ 특히 예술미의 논의에 주목하면,³²⁾ 미감적 이념은 아름다움을 판단

25) KU, B242.

26) 공병혜 (1996), pp. 141-142.

27) 공병혜 (1996), p. 143.

28) KU, B187.

29) KU, B166-168.

30) KU, B179.

31) KU, B203.

2. 독립 단락으로 표시하는 방법

(~2point까지)

(위아래 한줄 띄우기, 왼쪽 오른쪽 들여쓰기, 글자크기 조절)

에, 곧바로 헤겔은 자신의 당대가 결코 예술에게 유리한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내비치면서,⁴⁷⁾ ‘예술의 과거성’ 문제를 거론한다.

← 안붙여도 됨 (각줄지기 따라 하도록 형식이 있음)

→ “이 모든 정황들 속에서 예술을 그 최고의 규정의 측면에서 볼 때, 우리에게 대해 예술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(ein Vergangenes)이고 지나가 버린 것으로 남아 있다. 이로써 예술은 또한 우리에게 대해 그 참된 진리와 생명성(Lebendigkeit)을 상실했으며, 옛날처럼 현실 속에서 그 필연성을 주장하고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표상 속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.”⁴⁸⁾ ←

이 같은 언급은 ‘호토판 헤겔 미학’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의 ‘미학 강의’에

46) Hotho, p. 179. 그러나, 헤겔은 이 말에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. “하지만 아름다움의 왕국 자체는 대자적으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. 왜냐하면 자유로운 개념이 단지 감각적으로만 그 속에 현전하며 어떤 정신적인 실재성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.” 이러한 언급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낭만적 예술형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. Ästhetik2, pp. 127-128 참조

47) Ästhetik1, pp. 24-25.

48) Ästhetik1, p. 25.

❖ 간접 인용

- 요약하기 방법으로 자료의 핵심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인용하는 방법
- 간접 인용도 인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주석 처리를 해야 한다.

칸트는 이미 만족과 불만족을 통해 취미판단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. (칸트에 의하면 취미판단에서 ‘감정의 보편적 전달가능성’은 ‘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그 감정에 대해 가능한 한 일치한다.’는 것을 의미하며, 이러한 일치는 ‘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면서도 숨겨져 있는 근거’에서 유래한다.)⁶³⁾ 칸트는 이 근거를 ‘아름다움의 이상’이라고 부르면서, 인간만이 이 ‘아름다움의 이상’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.⁶⁴⁾ 이와 같은 논의에서

63) KU, B241-242.

64) KU, B236-237.

65) KU, B5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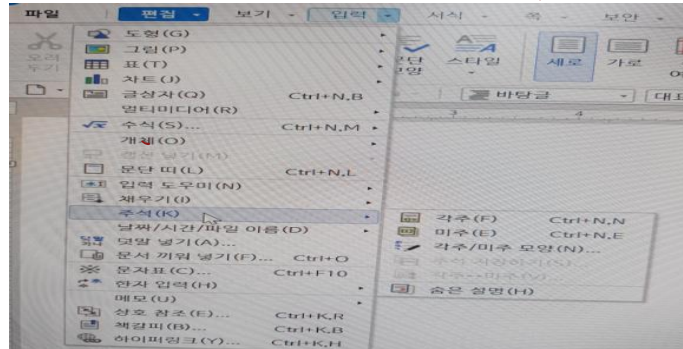
주석의 종류

1. 인용한 근거 자료: 반드시 주석 표기를 통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.

2. 주석의 종류

- 1) **각주**: 학술논문, 학술 도서 - *같은 페이지 하단에*
- 2) **미주**: 일반적인 글, 대중적인 도서 - *맨끝에*

(미관상)



~~3)~~ **내주**: 학술논문, 학술서

전문적인 학술 논문

헤겔은 세 가지 예술 형식을 예술의 고유한 본질에 입각하여 구분한다. 우선, '20/21년 미학 강의'에서 헤겔은 예술에서 중요한 문제는 '개념과 표현이 서로 상응하는가', '개념이 자신의 가장 완전한 형식을 지니는가'라는 것이라고 하면서, '예술의 분류'는 '개념과 실재의 통일이나 합치'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(Hegel, 1995: 38-39). '23년 미학 강의'에서도 예술의 첫 번째 규정은 '내용이 형식에 적합한가' 여부이며, 예술의 '아름다움'은 '실재가 개념에 적합한 상태 또는 적합하게 만드는 과정'이라고 표현된다(Hegel, 1998: 32, 34). 예

주석(참고문헌) 표기 방법

- **MLA식**: 저자명, 책제목, 출판사, 출판 연도, 쪽수.

91) P. Szondi, *Poetik und Geschichtsphilosophie I*, Frankfurt am Main: Suhrkamp Verlag, 1974, 462쪽.

- **APA식**: 저자명(출판연도), 책제목, 출판사, 쪽수.

서정혁, 2014. 「헤겔의 회화론의 현대적 의미」. 『헤겔연구』. 제35호. 한국헤겔학회. 79-111.

- **국내 자료** 한국어. 번역본도 포함.

- **단행본**: 저서명에 반각기호의 이중꺼쇠(『』)사용 → 책(한권)
- **비단행본**: 논문, 자료명을 꺼쇠(「」)로 묶음 → 책 X. 단행본이 아닌 것
학생에게 실려있는 논문 | 포인
신문기사, ..

- **국외 자료**

- **단행본**: 저서명을 이탤릭체(*Space and Place*)로
- **비단행본**: 논문, 자료명을 " "로 묶음

- ▶ 단행본: 저자명, 저서명, 출판사, 출판년도, 인용 쪽 순

예) 김정일, 『여성의 근대, 근대의 여성』, 푸른역사, 2004. 73쪽.

- ▶ 번역본: 저자명, 역자명, 저서명, 출판사, 출판지역, 출판년도, 인용 쪽 순

예) E. H. Carr, 김택현 옮김, 『역사란 무엇인가』, 까치, 1997. 17~18쪽.

- ▶ 논문: 필자명, 논문명, 게재지명, 출판사, 출판년도, 인용 쪽 순

예) 정현백, 「민족주의와 페미니즘」, 『페미니즘 연구』, 동녘, 2001. 30~31쪽.

고동환, 「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 추세와 도시문제 발생」, 『역사와 현실』 제28호, 한국역사연구회, 1988. 191~192쪽.

지은숙, 「비혼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」,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논문, 2016. 32쪽.

- ▶ 신문 기사: 필자명, 기사명, 신문명, 연월일

예) 전성은, 「대학, 교육의 질로 승부할 때다」, 『동아일보』, 2004.9.20.

- ▶ 인터넷 자료: 전자주소를 함께 표기

예) 임지현, 「화산재는 국경이 없다」, 『조선일보』, 2010.4.28.

(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0/04/28/2010042802574.html)

▶ 약식 주석: 동일한 문헌을 반복적으로 인용할 경우 약식 부호를 사용한다.

1) *ibid*: 바로 위의 각주에서 완전하게 소개한 다음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이 부호를 적고 인용한 쪽수만 제시한다. 국내 문헌의 경우 *ibid* 대신 '위의 책', '위의 글'이라고 한다.

예) 1) Yi-Fu Tuan, *Space and Place*,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: Minneapolis, 1977, p. 35.

2) *Ibid*, p.7.

예) 1) 에리히 프롬, 장경룡 옮김, 『자유에서의 도피』, 해원출판사, 1999. 266쪽.

2) 위의 책, 270쪽.

2) *op. cit*: 바로 위가 아니라 앞부분에서 인용했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 다음에 이 부호를 적고 인용한 쪽수를 적는다. 한글 문헌의 경우 '앞의 책', '앞의 글'이라고 한다.

예) 1) Yi-Fu Tuan, *Space and Place*,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: Minneapolis, 1977, p. 35.

참고문헌 작성

- 학술 논문은 참고문헌을 [별지]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인용된 모든 자료는 참고문헌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국내/ 국외/ 단행본/ 비단행본 자료를 1차 문헌과 2차 문헌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.(학술지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)
- 가나다, ABC 순으로 정렬해주어야 한다.(도구-> 정렬)
- 외국인의 경우, 성-이름 순(Kant, I)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

■ 도움 받은 글

- 권 정임, “‘상징적 예술 형식’의 해석을 통해서 본 헤겔 미학의 현재적 의미,” 김 진섭/하 선규(워음), 『미학』(서울: 책세상, 2007).
- 박 배형, 『헤겔 미학 개요—미학 강의의 서론 해설』(서울: 서울대출판문화원, 2014).
- 서 정혁, “회극적인 것과 사변적인 것—아리스토파네스의 회극에 대한 헤겔의 해석,” 『헤겔연구』, 26호(2009).
- 서 정혁, “헤겔의 역사철학과 유럽중심주의,” 『헤겔연구』, 38호(2015).
- 서 정혁, “헤겔의 철학 체계에서 ‘세계사’의 의미: ‘객관정신’과 ‘절대정신’의 관계를 중심으로,” 『철학연구』, 114집(2016).
- 아서 단토, 『예술의 종말 이후』(이 성환/김 광우 옮김)(서울: 미술문화, 2004). 원제는 Danto, A. C., *After the End of Art*(Washington: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National Gallery of Art, 1997).
- 에밀 앙게른, 『역사철학』(유 현식 옮김)(서울: 민음사, 1997). 원제는 Angehrn, E., *Geschichtsphilosophie*(Stuttgart: Kohlhammer, 1991).
- 조 창오, “헤겔의 예술비평—대중을 위한 예술작품,” 『철학연구』, 142집(2017).
- 헬무트 슈나이더, “미학적이며 예술적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인 헤겔의 낭만적 예술 형식—헤겔 이후의 예술의 미래,” 『헤겔연구』, 10호(2002).
- Etter, B. K., “Hegel’s Aesthetic and the Possibility of Art Criticism,” *Hegel and Aesthetics*, ed. by W. Maker(Albany: SUNY, 2000).
- Hegel, G. W. F., *Theorie Werkausgabe in zwanzig Bänden*(Frankfurt am Main: Suhrkamp Verlag, 1969ff). (=TW)
- _____, *Gesammelte Werke*(Hamburg: Felix Meiner, 1968ff). (=GW)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*, in TW13(1970¹).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I*, in TW14(1970²).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II*, in TW15(1970³).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*, in TW12(1970⁴).
- _____, *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*(1827). in GW19(1989).

- 고장범, 『설리의 문학과 미학』, 서울대 출판부, 2000.
- 김수용, 『아름다움의 미학과 송고함의 예술론—설리의 고전주의 문학 연구』, 아카넷, 2009.
- 최준호, 『칸트와 설리에서 미의 경험과 도야』, 『철학연구』, 제80집, 철학연구회 편, 2008.
- Beiser, F., *Schiller as Philosopher - A Re-Examination*, Oxford: Clarendon Press, 2005.
- Berns, G., *Greek Antiquity in Schiller's Wallenstein*, Chapel Hill and London, 1985.
- Böhler, M. J., "Die Bedeutung Schillers für Hegels Ästhetik", *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*, Vol. 87, No. 2, 1972.
- Böhm, W., *Schillers Briefe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*, Halle/Saale, 1927.
- Borchmeyer, D., *Tragödie und Öffentlichkeit. Schillers Dramaturgie im Zusammenhang seiner ästhetisch-politischen Theorie und die rhetorische Tradition*, Munich, 1973.
- Bubner, R.(Hrsg.), *Das älteste Systemprogramm*, Bonn: Bouvier Verlag, 1973.
- Disselbeck, K., *Geschmack und Kunst. Eine systemtheoretische Untersuchung zu Schillers Briefe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*, Opladen, 1987.
- Fiala, A. G., "Aesthetic Education and the Aesthetic State: Hegel's Response to Schiller", in: *Hegel and Aesthetics*, ed. by W. Maker, Albany: State Univ. of New York Press, 2000.
- Gethmann-Siefert, A., *Die Funktion der Kunst in der Geschichte-Untersuchungen zu Hegels Ästhetik*, Bonn: Bouvier Verlag, 1984.
- _____, *Einführung in Hegels Ästhetik*, München: Wilhelm Fink Verlag, 2005.
- Hansen, F.-P., „Das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“. *Rezeptionsgeschichte und Interpretation*, Berlin: Walter de Gruyter, 1989.
- Hegel, G. W. F., *Gesammelte Werke*, in Verbindung mit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, hrsg. von der Rheinisch-Westfäl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, Hamburg, 1968ff.(=GW)
- _____, *Theorie Werkausgabe in zwanzig Bänden*, Redaktion von E. Moldenhauer

1. 1차 문헌

- Hegel, G. W. F., *Gesammelte Werke*, in Verbindung mit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, hrsg. von der Reinische-Westfäl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, Hamburg, 1968ff.(=GW)
- _____, *Theorie Werkausgabe in zwanzig Bänden*, Redaktion von E. Moldenhauer & K. M. Michel, Frankfurt am Main, 1969ff.(=TW)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*, in TW13, 1970.(=Ästhetik1)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I*, in TW14, 1970.(=Ästhetik2)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I*, in TW15, 1970.(=Ästhetik3)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, Berlin 1820/21*, hrsg. von H. Schneider, Frankfurt am Main: Peter Lang, 1995.(=Ascheberg)
- _____, *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Kunst, Berlin 1823 Nachgeschrieben von Heinrich Gustav Hotho*, hrsg. von Annemarie Gethmann-Siefert, Hamburg: Felix Meiner Verlag, 1998.(=Hotho)
- _____, 권정임 · 한동원 옮김, 『헤겔 예술철학』, 미술문화, 2008.(=권정임)
- _____, 두행숙 옮김, 『헤겔미학I』, 나남출판, 1996.(=두행숙1)
- _____, 두행숙 옮김, 『헤겔미학II』, 나남출판, 1996.(=두행숙2)
- _____, 두행숙 옮김, 『헤겔미학III』, 나남출판, 1996.(=두행숙3)
- _____, 박병기 옮김, 『헤겔의 자연철학』, 나남, 2008.
- _____, 서정혁 옮김, 『미학강의』, 지만지오전집출, 2008.(=서정혁)
- _____, 임석진 옮김, 『철학사I』, 지식산업사, 1996.(=철학사)
- Platon, Symposium(=Das Gastmahl), in: *Platon Werke in Acht Bänden Griechisch und Deutsch*, Bd.3, hrsg. von G. Eigler, Darmstadt: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, 1974.(=Symposion)
- _____, 박희영 옮김, 『향연-사랑에 관하여』, 문학과 지성사, 2003.

Nietzsche, F. W., *Jenseits von Gut und Böse*, in: *Nietzsche Werke, Kritische Gesamtausgabe*, hrsg. von G. Colli und M. Montinari, VI-2, Berlin: Walter de Gruyter, 1968.

_____, 김정현 옮김, 『선악의 저편 · 도덕의 계보』, 책세상, 2002.

2. 2차 문헌

- Aristoteles, 천병희 옮김, 『시학』, 문예출판사, 1997.
- Corrigan, Robert W., "Aristophanic Comedy: 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", in: *Comedy. Meaning and Form*, ed. by Robert W. Corrigan, San Francisco: Chandler Publishing Company, 1965.
- de Molière, J.-B. P., 백선희 · 이연매 옮김, 『타르튀프 · 서민귀족』, 동문선, 2000.
- Derrida, J., *Writing and Difference*, trans. by A. Bass, Chicago: The Univ. of Chicago Press, 1978.
- _____, 남수인 옮김, 『글쓰기와 차이』, 동문선, 2001.
- Desmond, W., *Beyond Hegel and Dialectic - Speculation, Cult, and Comedy*, Albany N. Y.: State Univ. of New York, 1992.
- Flay, J. C., "Hegel, Derrida and Bataille's Laughter", in: *Hegel and His Critics - Philosophy in the Aftermath of Hegel*, ed. by W. Desmond, Albany, N. Y.: State Univ. of New York Press, 1989.
- Law, Stephen C., "Hegel and the Spirit of Comedy: Der Geist der stets Vernunft", *Hegel and Aesthetics*, ed. by W. Maker, New York: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, 2000.
- Mcier, Ph., *Autonomie und Souveränität oder das Scheitern der Sprache - Hegel im Denken von Georges Bataille*, Bern: Peter Lang, 1999.
- Strauss, L., *Socrates and Aritophanes*, Chicago: The Univ. of Chicago Press, 1966.
- 윤병태, 『아리스토파네스와 니체의 반소크라테스주의의 본질』, 한국헤겔학회 펴냄, 『헤겔연구』, 제23호, 용의 숲, 2008.
- 이정린, 『아리스토파네스와 고대그리스 희극공연』, 한국학술정보(주), 2006.
- 황설중, 『헤겔의 『정신현상학』에서 죽음과 의식의 경험-노동과 예로타즘의 관계를 중심으로』, 한국헤겔학회 펴냄, 『헤겔연구』, 제23호, 용의 숲, 2008.

논문 점검 사항

- 서론, 본론, 결론을 구분한다.
- 소논문의 경우 불필요한 것: 표지, 목차, 본문의 세부 구분
- 각주와 참고문헌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.(참고문헌에는 쪽수 제외)
108 → 시제이디아2
- 문단 들여쓰기는 글자 한 자만큼 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각주 번호는 인용 내용의 마지막에 기재해야 한다.`
- 불필요한 줄바꾸기나 줄띄우기, 여백 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.